

지역 소식통

고창 구시포항 등대 '4월의 등대'로 선정

고창군 구시포항에 우뚝 서 있는 남방파제 등대가 해수부가 선정하는 4월의 등대로 이름을 올렸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등대로 고창군에 위치한 '구시포항 남방파제 등대'를 선정했다. 등대는 매일 밤 5초마다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인근 해역과 서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구시포항 남방파제 등대'는 18.9m의 높이로 레드(Red)와 인잔을 형상화했다. 이 등대가 있는 구시포항은 육지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인 가파도 주변에 인공으로 조성되었다.

등대에 가려면 차량이나 도보로 긴 제방을 지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전망대, 착시예술공간(트라이아트), 공원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과 노을을 배경으로 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북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사업 설명회

정읍시는 4일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신정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기기 표준화연구소 △안진성명공학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재)농축산물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5개 연구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략적·유기적 협력을 통한 양방향 R&D 사업발굴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설명회는 기술사업화 지원과 제와 신규 및 중·대형 R&D 기획·발굴, 지역혁신 주체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설명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줄포만갯벌, 블루카본 조성 협약

부안군, 해경·포스코에너지·월드비전 등 협약기관과 탄소중립 공동 실현

부안군은 4일 부안해양경찰서·포스코에너지·월드비전(이하 협약기관)과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해바다 줄포만갯벌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블루카본은 갯벌, 어패류, 잡곡, 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하며 블루카본은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현재 지구온난화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공공기관·기업·NGO가 함께 서해바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환경 보전, 사회적 연대와 책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정책수립과 홍보 방안 마련 △협약기관별 블루카본 세



부안군, 해경·포스코에너지·월드비전 등 협약기관과 탄소중립 공동 실현을 위한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식. 협약기관은 다섯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약인원을 도출, 서해바다 줄포만갯벌에 3년에 걸쳐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칠면초, 해홍 나문재 등 바다관종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와 함께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갯벌 보전·보호 캠페인 전개를

위해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캠프대회 참여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시·홍보부스 운영 및 갯벌 이식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줄포만갯벌은 2010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보전보전에 머물렀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정책 전환을 통해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 등 잠재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NGO가 함께 서해바다 갯벌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블루카본 조성을 추진한 첫 사례인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일 남부안권 주요 업무 추진사업장 등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

권익현 부안군수, 남부안권 주요 추진사업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일 남부안권 주요 업무 추진사업장 등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행정은 모항전망대에서 운호 군유지 민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대상지를 조망하는 것으로 시작,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예정지,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염생식물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낚시·여가 특별구역 지정 공모 예정지,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한빛권 현장 방식는 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사업 등 남부안권 9개 주요 추진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현장행정은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권익현 군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군정 중점사업과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 중심 정책 수립... '2023 전북도 사회조사' 진행

정읍시, 지역 내 표본 1005가구 대상 '시민 삶의 질 수준·의식변화' 조사

정읍시가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진행한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 지역 정책 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통계청의 협조 아래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005가구를 표본 추출한 후 해당 가구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내용은 7개 분야 56개 항목으로 △교육 △보건 △의료 △주거 △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전라북도 및 정읍시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정읍시 특성 항목은 △일거에 보 확인 △청소년 진로 탐색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 △고향사랑기부제 △고충 민원 △코로나19 대응 △청년 행복도 △시정 관심도 8개 분야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7명이 각 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내부 점검과 분석 작업 이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올해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통계자료의 형태로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청, 주민 편의공간 대폭 확충... 리모델링 완료

고창군이 청사에 카페와 갤러리 등 주민 편의공간을 대폭 늘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사 스마트환경 리모델링 개소식'을 열었다. 1983년 건립된 군청사는 연면적 7747㎡, 지하 1층~지상 6층의 규모로 건립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과 경직된 분위기 탓에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공간으

로 인식돼 왔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군민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편의공간 확충 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돼 왔다.

광장 한쪽에 자리잡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등나무 숲 카페는 독특한 곡선형 지붕으로 지어져 주변 밀수습 나무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문객이 청사 안에 들어오며 마주하는 첫 시선에 민원안내실을 뒀다. 반가운 인사와 밝은 미소 친절하

고 빠른 안내로 군민과 방문객을 맞는다.

이에 더해 여권신청이나 각종 민원 서류 발급과 제도 신청이 이뤄지는 종합민원실도 주민 대기 공간을 대폭 늘렸다. 노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편안히 앉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때론 친절할 상담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계단과 통로를 활용해 수준급의 회화 작품들을 전시하며 볼거리를 늘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해군함정 '고창함' 함장과 교류 활성화 협의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3일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군함정 고창함장 이용승 소령과 차담을 가지며,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해군 기뢰탐색함인 고창함을 고창군민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단절되었던 교류사업을 재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군수와 이 함장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찾고 서로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창군은 해군함정 '고창함'과 2007년 함정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이

름으로 명명한 근본 취지에 따라 자매결연체결을 맺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고창함, 해군사관학교 등 군사 시설을 견학하는 등 국가보건의식 고취와 진로탐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고창군은 국내 7개 자치단체와 고창함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